‘가족 공동체’ 살리기 해법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이미 해체됐다. 이혼율은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출산률마저 2003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가족’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전통 가족’의 붕괴와 부부 · 자녀 · 노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시점.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서로 존중하고 자주 대화하라

노인문제

‘할일’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급속히 높아져 2004년 8.7%에서 2014년 12.2%, 2024년 18.3%, 2030년 23.1%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년인구(0~14세) 비율에 대해 노년인구 비율을 산출하는 노령화지수의 경우 2004년 43.3%에서 2016년 86.9%로 12년 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전반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문제는 그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부양체계 해체로 소외받고 경제적 빈곤에 처하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가족 구성원에 있어 일곱 번째 서열이라는 웃지 못 할 소리마저 흘러나온다. 아빠, 엄마, 자녀 둘, 애완견, 가정부 그리고 조부모의 순서라는 것. 가족해체 시대에 만나는 현 가족의 현실이다.

고재욱 관장(은평노인복지관)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선가정 후국가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과 이웃 친척이 담당하는 자녀형 복지와 국가차원의 제도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는데 부모 공경이 내 선업을 쌓는 길”임을 강조했다.

가족간의 의사소통 부재도 노인 소외의 중요한 원인.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불교에서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는 대중공사를 도입해서 매주 한차례 온 가족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문제는 가족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노인복지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을 활성화시키고 종단 차원에서 혹은 각 사찰에서 노인대학을 만들어 노인들이 낮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해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의견이다. 자신의 활동영역을 가지는 노인은 좀더 주체적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범망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효(孝)가 곧 계(戒)’임을 설하셨다. 내 부모를 섬기는 일이 곧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이 설한 계율을 따르는 가장 작은 실천이다.

부부문제

있는대로 인정하자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 이혼, 결혼 3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율 급증, 이혼율 세계 3위’. 때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이혼에 관한 각종 통계로 ‘가족붕괴’에 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문제는 불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절에 가서는 각자 ‘상생’의 화두를 들고 수행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평소 습관대로 움직이며 잦은 마찰을 빚는 경우, 가사 · 육아 업무는 미뤄둔 채 사찰 봉사 등에만 발벗고 나서서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등 예는 상당하다.

그러나 한주영 연구과장(불교여성개발원)은 “불법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지혜란 다름아닌 상생의 지혜다. <잡아함경>에서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서로 공경하고 일을 할 때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부부라 한다”고 했다.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자 마음먹었다면, 서로의 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관심과 이해는 대화를 부르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신과 상대를 긍정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영호 겸임교수(성균관대 생활과학부)는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매년 혼인준비교실 ‘준비하는 결혼, 행복한 과정’을 운영하며 실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부부갈등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문제

집착을 버리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고민 상담하는 대상으로 ‘친구’를 택한 경우는 59.8%로 나타난 데에 비해 부모를 택한 경우는 1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고민을 나누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라지면서 ‘가족애’에 금이 가고 있다. <장노게>에서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어디서나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라” 했건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소유물에 대한 집착’처럼 변질된다. 반면, 머리가 커진 아이들은 부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보현심 팀장(조계종 포교사단 어린이팀)은 “부모는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 아이의 행동을 재단하려 하고, 아이는 나름의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제약하는 무조건적인 강제에 조금씩 반항하기 시작,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백경임 교수(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는 <장아함경>의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부모도 다섯 가지로 자녀에게 경친(敬親)해야 한다. 첫째, 자녀를 제어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둘째, 가르치고 일러주어 그 착한 것을 보여준다. 셋째, 자애함이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한다. 넷째, 선한 짝을 구해 준다. 다섯째, 때에 따라 그 쓰임을 대어준다.”

강지연 · 강신재 기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 · 지자체 · 국가가 모두 나서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족화합 실천수칙 10계명

가족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여섯 가지 화합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를 기초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우리 가족이 화합하기 위해 지켜야할 열 가지를 정리했다.

1. 규칙을 같이 지켜라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부해라”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 책이라도 읽어라.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족에게만 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2. 한달에 한번 가족회의(대중공사)를 하라 부처님께서는 ‘대중공사’를 통해 전체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셨다. 한 달에 한번 가족회의(대중공사)를 정례화하고, 결과는 수용한다.

3. 같이 밥먹는 시간을 가져라 요즘 가족들은 하숙생같이 혼자 밥먹는 경우가 많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함께 마주 앉아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대화의 단절이 생기지 않는다.

4. 한 장소에 모여 살아라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라.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아래 위 층이나 옆 집, 한 아파트 단지 등 가까운 곳에 살면서 수시로 들여다보고 삶을 공유해야 한다.

5. 부드러운 말투로 자비롭게 말하라 거친 말을 사용하면 감정이 상하게 된다. 말이 험해지면 감정이 격해지고 원치 않는 폭력을 부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악업의 하나임을 늘 강조하셨다.

6.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의견은 다르다. 대학진학도 자녀와 부모가 바라는 학과가 다를 수 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왜 그런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7. 같은 취미를 가져라 가족 모두가 공감하는 취미를 가진다면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고스톱, 노래 등 공통 취미는 세대간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8. 책임을 져라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은 하지 말자. 놀러갈 약속을 해 놓고 부모가 어긴다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 책임지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도 책임을 배운다.

9. 같은 종교를 가져라 가족법회를 개최하고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가족의 종교가 다르면 불화의 씨앗이 된다. 한 종교 안에서 같이 신행과 봉사생활을 해야 한다.

10. 칭찬을 아끼지 말라 칭찬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낳는다. 특히 늦게 가족이 된 며느리, 사위 등에 대한 칭찬은 더 많이 하자. 오고 가는 칭찬 속에 가족의 정이 돈독해진다.

도움말 지완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서광 스님(보스턴 서운사 주지) 이근후(가족아카데미아 대표) 백경임(동국대 교수)

한집서 3代 평화롭게 살기 - 이근후 박사네 가족 이야기

‘부모 봉양비’와 ‘동보메일’로 갈등 ‘훌훌’ 가족애 돈독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가족>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가족은 노동력을 많이 가진 가족”이라며 확대가족의 부흥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같은 가족질서 안에서 상생과 나눔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CEO의 자질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후(가족아카데미아 대표)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그 같은 가족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근후 박사 가족은 부부 내외, 아들 · 딸 내외 4쌍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근후 박사가 며느리나 사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몸소 느끼고 싶어 6개월~1년 간 한집 살림을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이후 뿔뿔이 흩어진 자녀들이 최근 부모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해 오며 또다시 함께 모이게 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날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 장남이라고 부모를 모셔야 할 당위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20여명에 이르는 가족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 이 박사는 전 가족의 참여하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집을 설계했다.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딪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 각 가족은 각자 다른 층에서 독립된 생활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공간 역시 각 부부 개성에 맞게 꾸몄다.

사적인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삶의 재미 역시 한껏 살렸다. 아파트 관리비 대신 ‘부모 봉양비’를 걷어 정기적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위해 마당 놀이기구를 공동으로 마련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하루에 한번씩 가족끼리 띄우는 동보(同報)메일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가족 수칙 ‘예띠의 집 헌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검토 · 수정하며 편한 생활을 지향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기 마련. 이근후 박사는 “상생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다보니 갈등이 쌓이기 전에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습관이 된 듯하다”고 말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저마다 ‘독특한 불성’이 있음을 존중하고 나름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들을 가족처럼 긍정하겠다는 것이 ‘부처를 닮으려는 가족’의 궁극적인 목표다.

www.nexusshopping.com

이것이 진짜 물이다

전해환원수는 물이 아닙니다.
의료용 물질로 승인받은 기능水입니다.

세계발명특허 •치명적인 미네랄 도금현상 완전 해결 •자동세정에 따른 필터 물낭비 없음!

MBC특집 [생명수의 진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임상실험에 적용된 제품임.

인터넷 주소창에 “암당뇨아토피고혈압에좋은물”을 치세요

대리점모집·영업사원 / 제품구입 및 상담문의

한글인터넷주소 넥서스홈쇼핑 TEL : (02)5676-365 H·P : 011-789-949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822-7 목화밀라트 1010

족욕 · 반신욕 효과의 혁명 의료용 증기욕조!

건강통돌이

국내최초 개발상품 FZ600A

의료용 증기욕조기 ‘건강통돌이’가 머리는 차게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두한족열 상태의 건강욕법입니다. 또한, 혈액순환 및 피부관리, 건강관리에 아주 뛰어난 의료용구입니다.

* 의료용구 인증 (식약청)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증
* 실용신안출원 (제2004-0014856호)
* 특허출원 (10-2004-0038188)

– 수증기를 이용한 건강요법, 남녀노소 대만족!
– 사무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가능, 리모콘 온도조절로 편리
– 욕조없이 간편하게 족욕, 반신욕의 효과, 피로회복에 탁월

•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
• 웰빙 효과 직접 체험
•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쑥액기스 1상자 증정

웰빙산업을 주도하는 건강기업 C&H 씨앤에치

대표전화 02-482-6511
담 당 010-3130-9492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6기생**을 모집함

1 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2 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수열(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50명) · 불교문화답사학과 (정규반30명, 통신반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12월 11일~ 2005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불교문화답사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

불교학과 : 2005년 2월 5일(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불교문화답사학과 : 2005년 3월 8, 9, 10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